

문화

“세상을 수행처 삼아, 노래를 화두 삼아 재즈의 길을..”

불자 재즈가수 웅산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관음정경을 하고 반야심경을 외웠던 소녀는 고등학교 생이 될 무렵 학교를 가는 대신 출가를 선택했다. 번다한 속세보다 조용한 산사가 좋았던 그녀는 그렇게 스님이 되었다. 법명은 웅산이었다. 수행자로 2년 동안 산사에서 참선을 하고 관음정진을 하며 세속의 물결을 벗어날 즈음 그녀는 자신 안에 버릴 수 없는 꿈이 요동치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 끊임없이 염불이 노래가 되어 자신의 내면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의 온 마음이 온 몸이 간절히 음악을 원하고 있었다. 그녀는 산사를 떠났다. 환속이었다. 예술가와 수행자는 같은 운명이라고 했는가? 그녀는 세상을 수행처 삼아 노래를 화두 삼아 새로운 구도의 길을 선택했다.



최근 7집 앨범을 낸 불자가수 웅산은 일본 투어 콘서트에 나섰다.

시각장애인 개그맨 이동우에게 재즈 가르치며 재능보시
최근 생명나눔 홍보대사 위촉
7집 발매 기념 일본 콘서트도

한국 최고의 재즈 디바이자 불자가수 웅산은 이렇게 탄생했다. 웅산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국내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일본 재즈 마니아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도쿄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500회가 넘는 공연과 1년에 4차례 전국 투어를 가질 만큼 그 인기는 대단하다.

그녀는 지난 2월 5일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민) 홍보대사로 위촉되면서 되면서 또한한 불자 가수임을 증명했다. 이는 음악으로 세상과 나누는 길을 찾아보셨다면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택이기도 했다. “제가 가진 신체의 일부를 다른 생명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이지요. 생명나눔 홍보대사는 그래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녀의 보시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웅산은 개그맨 이동우 씨에게 2년 전부터 재즈 보컬 트레이닝을 해주고 있다. 이 씨는 2004년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진행성 난치병 진단을 받고 시각장애인 이 됐다. 이 러에게 웅산은 2년전부터 재능보시로

말부터 일본 6개 도시를 돌며 일본의 기타리스트 지로 요시다와 듀오공연을 한다. 웅산은 98년부터 일년에 세 번 정도 일본 공연을 이어왔다. 그녀의 이번 7집 앨범에서는 타이틀곡이자 애절한 발라드곡인 ‘I Love You’를 비롯해 블루스 ‘Mr. Blues’, 보사노바 ‘Asi Que’, 펑크 ‘Mi Tango Triste’ 등 송라이터로서 다채로운 장르에 도전한 웅산스타일의 음악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이번 앨범에서는 강렬하면서도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닌 재즈보컬리스트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도전했다. 그 중 어린시절부터 들어왔고 그녀의 음악적 뿌리라 할 수 있는 록과 블루스 장르 뿐 아니라, 펑크와 보사노바 같은 라틴뮤직, 그리고 재즈화하기 힘들었던 오페라 명곡까지 소화해낸다.

재즈는 또다른 수행과도 같다고 말하는 웅산. 그래서 그녀는 음악을 통해 무한한 자유를 얻고 깨달음을 얻는다. “노래를 시작하면서 알았어요. 참선을 했던 게 큰 자산이었다는 것을. 이미 정진을 하면서 복식 호흡을 저절로 체득했고 이것이 현재 노래하고 있는 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재즈는 가장 큰 자유를 이야기하는 음악입니다. 한없는 자유를 얻기 위해 노래하죠. 불교 역시 궁극적으로 깨달음의 자유를 구한다는 점에서 둘은 통하는 부분이 많아요.”

매번 공연 때마다 무대 위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울컥하는 마음을 애써 감추느라 입가에 미소를 가득 머금은다는 웅산. 자신의 음악을 듣기 위해 와준 관객들을 보면 늘 감동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라고, 그녀가 무대에서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단 한가지다. 록을 하던 자신이 빌리홀리데이 음악에 반해 재즈를 시작했듯이 다른 누군가의 가슴에 그 가슴 떨리는 재즈의 울림을 전해주고 싶다는 웅산. 그래서 그녀는 오늘도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정진에 정진을 거듭하며 재즈 수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웅산은 관객들에게 재즈의 감동을 전하기 위해 늘 최선의 무대를 펼친다.



웅산 7집 앨범 'I Love You' 표지

배를 돌려 신선 세상 찾아가 보세

하룻밤 절집에 함께 자면서

일찍부터 시재(詩才)를 드러내 주목 받았던 백광훈은 진사나 참봉품의 벼슬을 살기는 했지만, 출세의 길에 들지 않고 강호로 몸을 피해 자오(自娛)의 삶을 누렸다. 당대의 명유(名儒) 문객과 두루 교류하기도 하며 문장을 펼쳐 8문장의 하나로 꼽히기도 했고, 글씨를 잘 써 영화체(永和體)에 일가를 이루기도 했다.

1578년 8월 11일 삼당시인이 봉은사에 모여 하룻밤을 함께 지냈다. 북쪽으로 떠나는 이달을 전송하는 송별모임이었다. 세 시인은 시풍을 함께 나누는 글벗이기도 했고 맑은 기상과 가난이라는 재산도 공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봉은사를 자주 찾았고 동호 인근의 한강 풍경을 함께 감상하기도 했다. 세상에서 그들을 삼당시인이라 불러주지 않아도 이미 그들은 지음(知音)의 자리에서 깊은 교류를 지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심추수사(重尋秋水寺)
연수광릉서(煙樹廣陵西)
문경로비원(聞磬路非遠)
망운행역미(望雲行亦迷)
야심승입정(夜深僧入定)
월출조경서(月出鳥驚棲)
공취중로숙(共就中寮宿)
한산벽전제(寒山碧殿齊)

다시 가을 등 봉은사를 찾으니

광릉의 서쪽안개 낀 나무숲.
경쇠리 들리니 길은 멀지 않은 듯
구름을 바라보니 길 길이 어지럽다.
밤 깊어 스님은 입정하였는데
달이 떠새는 등지에서 놀란다.
요사체에 나아가 자노라니
차가운 산 푸른 전각 가지런하구나.
-백광훈 '8월 11일 밤...' (옥봉집)

이 시의 갖추어진 제목은 '8월 10일 밤에 가운(嘉運) 익지(益之)와 함께 봉은사에 자면서(八月十一夜與嘉運益之同宿奉恩寺)'이다. 가운은 최경창이고 익지는 이달이다. 그러니까 8월 10일 밤에 최경창 이달과 더불어 봉은사에 자면서 쓴 작품이라는 얘기다.

삼당시인들이 추구했던 당시풍이란 구구한 설명조의 시가 아니다. 담박하게 풍경을 보여주고 감성적으로景物(景物)을 묘사하여 서정을 공감하게 하는 창작법이다. 이를 두고 '말하는 송시'와 '보여주는 당시'로 비교하기도 한다.

아무튼 이달이 관북지방으로 떠나기 직전에 모여 시를 얘기하고 인생을 토론했을 친한 세 시인의 하룻밤 풍경이 백광훈의 오언율시로 잘 그려져 있다. 시의 도입부는 안개가 덮인 강변 나무

임연태 시인 山寺에 갖는 선비의 詩心

⑩ 삼당(三唐)시인과 봉은사 ⑪



봉은사 일주문인 진어문 옆에 세워진 각종 공덕비와 송덕비가 절의 역사를 말해준다

숲 속의 봉은사로 찾아가는 장면이다. 봉은사는 동호 건너에 있었기 때문에 '호사(湖寺) 혹은 '수사(水寺)라 불렀다. 숲 속의 절이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경쇠소리를 통해 절이 가까이 있음을 짐작 하겠다. 거기에 하늘의 구름도 어지럽게 흩어진다고 했으니 저녁을 맞는 여수선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이윽고 밤은 깊어 스님은 입정에 들었고 달이 떠 등지의 새들이 깃을 친다. 그렇게 적정한 산사의 밤이 깊어간다. 적요 속에 놓여 있는 봉은사.

한산(寒山)은 봉은사가 위치한 수도산 이고 벽전(碧殿)은 새로 지어 막을하게 단청된 전각이니, 마지막 구절은 산과 절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세 시인이 나란히 절 방에 누워 열려진 문을 통해 절의 추녀와 산의 마루를 바라 보고 있는 것 같은 풍경이 그려지지 않는가?

귀거래의 열망

이제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나이 들어 봉은사를 찾은 백광훈의 마음이 그려진 시를 보자.

우인휴완도운문(偶因休浣到雲門)
파주제시승사촌(把酒題詩勝事存)
홍우일지풍만원(紅藕一池風滿院)
만선천수우귀촌(晚蟬千樹雨歸村)
심창호수종기환(深窓皓首從羈園)
유희청산사고원(猶喜靑山似故園)
문설금호연경이(聞說錦湖煙景異)
회용고도문진원(會容孤棹問眞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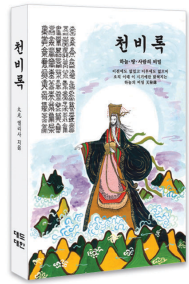
우연히 휴가 받아 절에 이르러
술잔 들고 시를 지으니 종던 일남아 있네.
온 못의 붉은 연꽃 바람 뜰에 가득하고
친 그루 나무 저녁매미 우는 마을로
돌아간다.
흰 머리에 벼슬살이 하는 신세
부끄럽지만
푸른 산이 고향 같아 그래도 다행이네.
비단 같은 강물 안개 낀 경치 좋다하니
배를 돌려 선경을 찾아감이 좋으리라.
-백광훈 '봉은사 연정에서...' (옥봉집)

백광훈의 대표 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 작품의 제목은 '봉은사 연정(蓮亭)에서 교리 이백생이 지어 보인 시에 차운하다(奉恩寺蓮亭 次李校理伯生見示之作)'이다. 시의 내용으로 볼 때 백광훈이 어느 정도 나이 들어 봉은사를 찾아와 글벗들과 어울려 수창(酬唱)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쓴 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의 절정은 미련에서 새로운 이상향의 세계를 찾아가고자 하는 동경심을 그려낸 대목이라 하겠다. '배를 돌려 선경을 찾아가'는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마음 곧 귀거래(歸來來)의 열망이다.

봉은사는 능침사찰로서 관료들의 발길도 잦았지만, 독서당이 있는 동호와 가까워 많은 선비들이 답사하며 시를 짓는 문화공간이었다. 자연 속의 봉은사는 시인 묵객들에게 자연이면서 근원이어서 무량한 시심을 길어 올리며 삶을 풍성하게 하는 자양(資養)의 공간이었다. 그 중심에 삼당시인의 흥취가 채색되어 있다.

천비록 (하늘·땅·사람의 비밀)



값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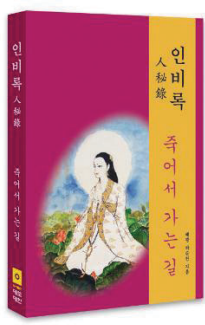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땅·사람의 비밀 天秘錄!”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도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로 나누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도서구입문의 : ☎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한)

교보문고/영풍문고/반디앤루니스/리브로/알라딘/예스24/철도문고/불광문고/대한서림/대동문고/중앙출판/세원출판/홍지서림/영광도서 등 전국 유명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인비록 (죽어서 가는 길)



값 15,000원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고,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웹진 인비록 : http://www.ddblog.co.kr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기마음



민속죽염 30년 전통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이물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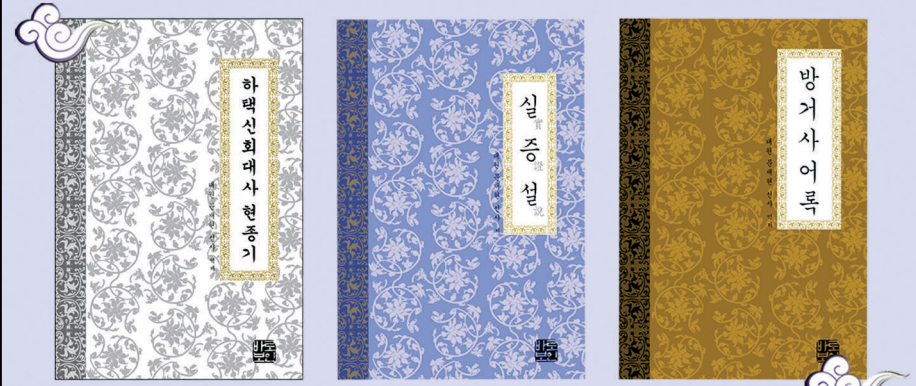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색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색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oy.co.kr



육조대사의 법을 꽃피운 하택 신회 대사의 깨달음의 경지

하택신회대사 현종기

실증하지 않고는 설파할 수 없는 실증의 법문 실증설(實證說)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말 밖의 말 방거사 어록



바른 신앙과 수행의 길잡이!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대한불교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현재 32종 64권의 저서 출간!

031-534-3373